

# 高麗時代 京畿地域 窯業의 性格\*

張南原\*\*

## 목 차

- I. 머리말
- II. 주요 窯場의 시설 및 生産品 특징
- III. 記錄을 통해 본 개경부근의 가마터
- IV. 京畿地域 窯業의 성격
- V. 맺음말

## < 요약 >

고려시대 수도 開京을 중심으로 경기·황해도 일원은 국가의 주요 기관들과 왕실 및 관료, 상업시설, 사찰 등 풍부한 도자기 소비처가 집중되었던 곳이자 국내에서 처음으로 자기생산이 이루어진 곳이다. 窯場의 규모와 구조, 생산품의 원료, 번조방법 등에서 중국남방 월주요계 博築窯의 窯業방식을 그대로 채용하여 중국기술이 직접 이식되었으나 중국과 달리 청자와 백자를 같은 요장에서 생산함으로써 초기부터 국내 상황에 맞춘 생산이 시작되었다. 이 과정에서 원활한 자기생산을 위한 일정한 체제 구축이 불가피하였을 것으로 경기지역의 자기생산을 초기부터 국가적 운영체제 아래 이루어졌던 것으로 본다. 이는 개경 인근의 요장들이 서로간에 일정한 質과 조형을 가진 자기를 생산하고 있었던 점, 초기 전축요 시기부터 국가용 祭器를 만들고 있었던 점, 또 실제로 所나 部曲의 존재와 일치하는 가마터들이 존재한다는 점, 그리고 국가에 窯業과 관련된 것으로 추정되는 職制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청자생산의 중심이 강진으로 옮겨진 이후 경기지역은 지역 수요에 부응하는 생산으로 그 성격이 바뀌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강진의 청자요업이 활성화 된 이후에도 경기지역의 전통적 요장들에서는 일정기간 국가용 제기를 만들고 있었음이 확인되어 고려요업의 성격과 변천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였다. 한편 개경을 중심으로 하는 경기일대의 많은 소비처들의 존재와 그 출토품의 양상은 기록에서와 마찬가지로 개경 인근에 고려 중기 이후까지도 운영되었던 생산지가 현재까지 알려진 것 이상으로 더 많이 존재할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주제어] 京畿, 開京, 博築窯, 土築窯, 瓷器所, 祭器

\* 본고는 2003년 5월 22일 경기도박물관 주관으로 개최된 <高麗時代 開城과 京畿>라는 題下의 학술세미나에서 필자가 발표하였던 「高麗時期 京畿地域 窯業性格에 관한 試考」(발표자료집)49-68. 내용을 재편한 것으로 발표 당일의 질문 내용도 본문에 반영하여 개고하였다. 고려시대 '경기'의 개념이 개경을 중심으로 현재의 경기, 강원, 황해(당시의 西海道)까지 포함하고 있으므로 본고에서는 현재의 경기지역 이외에 강원·황해도 지역까지 대상으로 다루었다.

\*\*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 연구원 (접수일 : 2004. 4. 25, 심사일 : 2004. 5. 10, 심사완료일 : 2004. 5. 25)

## I. 머리말

고려시대 수도였던 開京을 정점으로 하는 경기·황해도 일원은 우리나라 窯業史에 있어 제작기술 및 운영 등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다. 고려초 이 지역은 중국의 새로운 요업기술을 받아들여 본격적으로 청자와 백자를 생산하기 시작한 곳이며 고려중기에도 지역내 여러 요장에서는 지속적으로 요업이 이루어졌다. 경기 일원에는 南京을 위시한 국가의 주요 기관들이 집결해 있었으며 왕실과 관료, 상업관련, 사찰관련 등 풍부한 도자기 소비처가 집중된 곳이기도 하였다<sup>1)</sup>. 이같은 정치·경제적 요인은 경기지역을 중심으로 새로운 요업이 발달하게 되는 중요 動因이 되었을 것이며 고려중기 이래 후기까지도 끊임 없이 소비를 창출하였을 것으로 본다.

그 가운데 경기도 일대 가마터와 소비유적 출토품들은 최대의 수요처인 王都 開城과 주변도시의 産物이라는 점에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 특히 최근 경기지역에서 행해진 고고학적 성과중에는 고려시대 도자문화의 근본적 문제의 이해를 돕는 근거자료들이 포함되어 있어 경기지역의 요업성격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명하는 작업도 가능해졌다.

본 고에서는 개경을 중심으로 경기·황해도 일원에서 운영되었던 고려시기 窯場의 변천과정과 그 생산품의 특징 및 변화를 살펴보면서 그동안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았던 고려중기 이후까지의 요업 성격과 그에 따른 조형상의 변화를 찾아내고자 시도하였다<sup>2)</sup>.

즉 초기청자 제작단계에서 나타나는 제작기술과 운영성격을 통해 요업의 주체와 생산품의 목적 등을 살펴보며 이어 전남 강진으로 요업 중심이 옮겨지면서 경기지역 요장에 나타나는 변화를 통해 타 지역과 구분되는 경기지역 도자생산의 특징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이 과정에

- 1) 개경을 위시한 주변지역 소비지의 청자 사용 양태는 매우 다양할 것으로 추정된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분묘이다. 개성시 개풍군 고남리의 안릉과 양릉, 연통리의 명릉, 판문읍의 영릉, 선적리 경릉, 경기도 장단군 장도면의 장릉과 두메리의 지릉, 강화의 석릉 같은 왕릉은 물론 강화군 최항묘나 경기도 양평 매월리 등지에서는 다양한 질과 조형을 가진 고려산 청자가 중국산 백자, 국산 도기 등과 함께 출토되고 있다. 또 청자가 출토되는 사찰유적으로는 개성시 판문군 선적리 불일사와 경기도 안성 봉업사지, 여주 원향사지, 여주 고달사지등이 있다. 그밖에도 개성시 해선리, 방직동, 선죽동, 운학동과 개성시 판문군 진봉리, 인천광역시 강화군 국화리, 경기도 파주 혜음원지 등지는 생활유적으로 많은 양의 도자가 출토되었다. 소비유적 출토 도자는 장남원, 2000, 「고려시대의 陶器와 靑瓷」『제3의 전통, 옹기의 원류를 찾아서』(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176-185 ; 韓盛旭, 2001, 「高麗 後期 靑瓷의 性格」(목포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15-24 ; 방병선, 2001, 「開城出土 高麗靑瓷의 研究」『講座 美術史』第17號(한국불교미술사학회)201-225; 李鍾玟, 2002, 「韓國의 初期靑磁 研究」(弘益大學校 大學院 博士論文)39-56 ; 張南原, 2003, 「高麗中期 靑瓷의 研究」(梨花女大 大學院 博士論文)141-178 ; 한혜선, 2003, 「경기지역 출토 고려시대 지장·운반용 질그릇 연구」(한국상고사학회)77-116 참조.
- 2) 지금까지 경기일원의 요업만을 중점적으로 다룬 연구는 없었으며 초기청자 생산과 관련하여 언급되어 왔다. 李喜寬·崔健, 2001, 「高麗初期 靑磁生産體制의 變動과 그 背景」『美術史學研究』232(韓國美術史學會) ; 이희관, 2002, 「韓國 初期靑磁生産體制의 成立과 展開」『대의 문물교류 연구』(해상왕 장고보 기념사업회)31-71 ; 李鍾玟, 「앞글」 주1)논문

서 초기청자 요지에서 생산된 제기류에 주목하였다. 고려시기 도자의 변화과정을 경기지역 중심으로 보는 관점은 고려시기 요업의 변동상황을 이해하는 또 다른 방법론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 Ⅱ. 주요 窯場의 시설 및 生産品 특징

개경을 중심으로 경기 및 황해도 일원의 고려시대 가마터는 최근까지도 계속적인 발굴조사와 지표조사를 통해 많은 수가 알려지게 되었다. 그 가운데 발굴이 이루어진 주요 가마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시흥시 방산동 요지<sup>3)</sup>

1997~1998, 2002년에 해강도자미술관이 발굴 조사한 곳으로 벽돌로 축조된 청자가마 1기와 지하굴식 陶器가마 1기가 확인되었다. 청자가마는 가마 개축에 따라 그 길이가 39.1m→35.8m, 폭은 225cm→95cm로 축소되어 가면서 3개의 퇴적층을 형성하였다. 조사결과 靑瓷가마는 陶器가마에서 생산한 도기 퇴적층 위에 間層 없이 新設되었음이 확인되어 이미 도기를 위주로 요업생산이 이루어지던 지역에 새로운 기술이 도입되어 청자요업이 시작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최하층에서는 극소량의 백자와 갈녹색의 청자가 주를 이루는데 玉環底 碗이 많은 비율로 생산되었고 중간층에서는 청자외에 질이 좋은 백자를 생산하고 있으며 최상층에서는 청자보다 백자의 생산비율이 많아지며 청자는 그 질이 이전보다 떨어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초기적인 상감방법을 사용한 예도 확인되었다. 3개 층위의 생산품을 전체적으로 보면 鉢, 碗,



〈그림 1〉 시흥 방산동 가마유구

3) 海剛陶磁美術館·京畿道 始興市, 2001, 『芳山大窯』; 해강도자미술관, 2002, 11, 14, 「시흥시 방산동 토기요지 발굴조사 현장설명회자료」

4) 李鍾玟, 2001, 「始興 芳山洞 初期靑磁 窯址 出土品을 통해 본 中部地域 博築窯의 運營時期」 『美術史學研究』 228·229(韓國美術史學會)65-98.

접시가 중심이며 그밖에 甁, 壺, 注子, 盒 같은 특수기형들과 제기 등이 만들어진다<sup>4)</sup>. <그림1>

## 2. 용인시 서리중덕 요지<sup>5)</sup>

1984, 1987, 1988년의 3회에 걸쳐 호암미술관이 발굴 조사하였다. 博築窯에서 土築窯로 築窯材와 가마크기 등이 변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최하층의 벽돌가마는 길이가 약 40m, 가마폭 180cm이며 벽돌로 축조하였고 그 위에 보수한 진흙가마는 길이 83.26m, 가마폭 1.2~1.5m였다. 퇴적층의 양상에 따라 4개의 층위로 구분되는데 대표적 생산품인 碗의 경우 玉環底→玉璧底→輪形底 형식으로 바뀌며 초기에는 청자와 백자를 동반생산 하지만 Ⅱ기층 이후로는 백자가 증가하며 Ⅲ기층부터는 요업중심이 백자생산으로 바뀌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한편 Ⅲ기층에서는 장고편에서 상감기법을 사용한 예가 있으며 철화기법도 나타난다.

## 3. 용인시 서리상반 요지<sup>6)</sup>

2001년부터 2004년까지 3차에 걸쳐 발굴이 이루어졌다. 3차 발굴에서는 토축요 유구 일부가 노출되었으며 유구의 방향과 퇴적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퇴적층과 표토에 나타난 築窯用 벽돌들로 보아 용인 서리나 여주 중암리처럼 벽돌가마에서 진흙가마로 전환한 성격의 요장임을 알 수 있다. 1, 2, 3차를 통해 유물은 총 20여 기종이 확인되었고 생활용기 외에 제사용기도 제작되는 것이 특징이다. 생산품으로는 청자와 백자가 함께 보이나 용인 서리 中德요지처럼 조질의 백자로 전환하는 것으로 파악되며 전반적으로 서리 중덕요지 Ⅳ기층에서 양상과 가장 유사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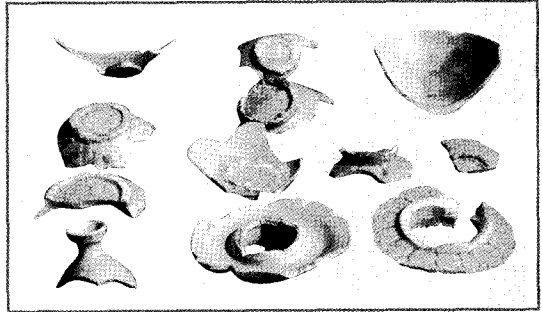


<그림 2> 여주 중암리 가마유구

5) 三星文化財團·湖巖美術館, 1987, 『龍仁西里高麗白磁窯-發掘調査報告書Ⅰ-』; 田勝昌, 2001, 「용인 서리요지 출토유물 고찰」 『龍仁西里高麗白磁窯址의 再照明』(龍仁文化院)15-32 ; 湖巖美術館, 2003, 『龍仁西里高麗白磁窯Ⅱ』  
6) 기전문화재연구원, 2001, 11, 6, 「용인 이동 서리상반 고려백자요지 발굴조사 지도위원회자료」; 畿甸文化財研究院, 2003, 2, 「용인 서리상반 고려백자요지 2차발굴조사 지도위원회자료」; 畿甸文化財研究院, 2004, 1, 27, 「용인 서리상반 고려백자요지 3차발굴조사 지도위원회 자료」

#### 4. 여주군 중암리 요지<sup>7)</sup>

2002, 2003년에 발굴조사되었다. 고려백자가마 1기와 퇴적층이 조사되었으며, 작업장으로 추정되는 적석유구도 함께 노출되었다. 퇴적층에서는 축요재로 사용했던 벽돌들이 발굴되었으나 발굴시 최종 가마는 길이 20.4m에 칸 넓이 100~170cm가량의 토축요였다. 따라서 용인서리 상반 요지와 비슷하게 博築窯→土築窯로 전환하는 가마로 해석된다.<그림2> 퇴적층은 층위에 따라 5개 그룹으로 나뉘는데<sup>8)</sup> 이른 시기에



<그림 3> 여주 중암리 요지 출토백자

제작된 것 일수록 기벽이 얇고 태토·유약이 정선되었으며 광택이 강한 담청색 釉調를 띤 것이 많고 제작시기가 늦은 것 일수록 태토가 거칠고 유층이 일정치 않으며 대형기종들이 함께 생산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번조시에는 고운 백색의 내화토나 황갈색 내화토를 받쳤다. 출토 유물은 碗이 중심으로 총 생산품의 50%를 차지하며 鉢, 접시, 盞이 그 다음이고 壺, 甌, 大鉢, 뚜껑, 大盤, 盞托, 祭器, 長鼓, 窯道具 등이 동반되었다.<그림3>

#### 5. 고양시 원흥리 요지<sup>9)</sup>

정식으로 발굴 조사되지 않았으며 약 5곳의 가마터가 알려져 있다. 녹갈색을 띠는 玉環底 계통의 碗, 대접, 접시, 壺 등이 주 생산품이다. 유층이 얇고 굽에는 백색의 내화토를 받쳐구웠다. 양주 부곡리 등지와 비슷한 시기에 생산한 것으로 추정된다. 원흥리에 대해서는 근래 『新增東國輿地勝覽』의 高陽郡 古跡條에 기재된 “巾子山 所”의 가능성이 제기되어 개경 부근 초기청자 요업의 성격을 규명하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sup>10)</sup>.

#### 6. 양주군 부곡리 요지<sup>11)</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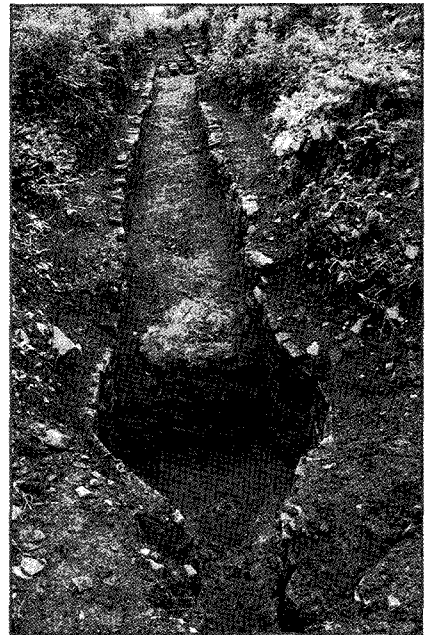
- 7) 京畿道博物館, 「여주 중암리 고려백자요지 발굴조사 현장설명회자료」, 2001, 10. 17 ; 京畿道博物館, 2003, 2. 「驪州 中岩里 高麗白瓷窯址 2次發掘調査 略報告書」
- 8) 장남원, 2003, 5. 22, 「高麗時期 京畿地域 窯業性格에 關한 試考」(경기도박물관)52 <표1>.
- 9)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92, 『한국의 청자요지』
- 10) 朴宗基, 2001, 「京畿 北部地域 中世 郡縣 治所와 特殊村落 變化研究」『北岳史學』第8集 (北岳史學會)144-149.
- 11) 全榮京, 1993, 「楊州 釜谷里 靑磁碗 研究」(弘益大學校大學院 韓國美術史專攻 碩士學位請求論文).

부곡리 지역은 아직까지 발굴조사가 이루어진 바가 없어서 지표 수집품을 통해 그 특징을 짐작해 볼 수 있다. 부곡리는 인근의 원흥리나 원산리, 시흥 방산동 등과 함께 초기청자를 생산했던 요장이다. 벽돌을 사용하여 가마를 축조하였으며 표토의 수습상황으로 보아 대개 碗이 주종을 이루고 그밖에 접시와 기타 기종 등이 있다. 태토는 매우 치밀하며 유약도 얇고 고르게 시유되었으며 연녹색, 청회색, 갈색 등 다양한 색으로 나타나지만 주류는 연갈색 계통이다. 얇은 원통형 갑발에는 구멍이나 기호가 없으며 이와 함께鉢形 갑발도 사용되며 갑발받침과 함께 번조시에 받침으로 사용한 墊環도 수습되었다. 접시나 완 가운데는 하나의 갑발 안에 여러점을 함께 포개서 재입한 것들이 있다. 또한 인근에서 도기편들이 수집되는데 특히 頸部에 음각의 波狀線紋帶를 넣은 항아리 구연편등이 수집되었다.

### 7. 황해남도 배천[白川]군<sup>12)</sup> 원산리 요지<sup>13)</sup>

개성에 인접하며 경기도 중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발달하는 초기청자 요장과 유사한 제품을 생산했 곳이다. 1989~1990년 북한 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에서 발굴조사를 실시한 결과 1基의 도기가마와 3基의 청자가마가 노출되었다. 조사시에 廢窯직전의 2호가마 바닥 최상층에서 ‘淳化三年(992)’ 과 ‘淳化四年(993)’ 의 명문이 적힌 ‘靑瓷豆形器’ 파편들이 출토됨에 따라 제작시기와 용도, 요지의 활동년대 추정을 가능케 해 주었다.<그림4>

1호는 지하굴식 도기가마이며 2~4호는 청자가마로 벽돌가마이다. 이 가운데 가마의 전모가 드러난 2호가마의 길이는 처음 38.9m에서 22.4m로 축소되었고 가마폭도 1.9m에서 0.8~1.0m로 좁아질 때까지 보축하여 사용한 것을 확인하였다. 3호와 4호가마의 양상도 유사했다고 보고 되어 있으므로 원산리의 下限은 대개 10세기 말로 추정되며 1호 도기가마 역시 출토품의 조형으로 보아 방산동



<그림 4> 원산리 2호가마

12) ‘봉천군’은 행정구역상 봉천군과 배천군으로 분리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확인이 불분명하였는데 최근의 북한측 자료에서 원산리를 ‘배천군’ 소속으로 기재하고 있어 그에 따르고자 한다. 김영진, 2002. 『도자기 가마터 발굴보고』(사회과학출판사)

13) 김영진, 1991. 「황해남도 봉천군 원산리 청자가마터 발굴간략보고」 『조선고고연구』2호(사회과학출판사)2-9 ; 조선유적유물도감편찬위원회, 1992. 「봉천군 원산리 자기가마터」 『조선유적유물도감』12(평양) 306-321.

등지와 비슷한 시기에 운영되었을 것으로 본다.

## 8. 황해남도 봉천군 봉암리 요지<sup>14)</sup>

5기의 가마터를 발굴하였다. 청자를 생산한 1호가마는 전축요로서 가마길이 약 44m, 폭은 평균 85cm정도이다. 원통형과 발형의 갑발이 출토되었으며 갑발받침도 함께 출토된다. 그 외의 4기는 도기요지로 단실의 전형적 도기 가마이다. 원산리 1호요지와 같은 성격의 도기를 생산하였다.

## 9. 인천광역시 경서동 요지<sup>15)</sup>

지방 수요를 위한 粗質靑瓷[綠靑瓷] 제작지로 알려져 있다. 잔존 가마는 길이 7.3m, 폭 120cm 내외로 토축요이다. 대접, 완, 접시 등이 주류를 이루며 자배기, 반구형장경병, 항아리 등이 있다. 녹색·암록색의 유조를 띠며 갑발은 사용하지 않고 가마 바닥에 경사진 陶枕을 받쳐 재임하였다.

## 10. 용인시 보정리 요지<sup>16)</sup>

비교적 거칠고 사립이 많은 청자가 주 생산품이다. 간혹 양질이 있으나 규석받침이나 상감기법을 사용한 예는 알려지지 않았으며 대부분 번조시 급부분의 유약을 닦아내고 거친 모래빛음받침을 대어 구웠다. 가마폭 1.2m 길이 20m 로 전형적인 고려중기 가마이다. 갑발을 사용하지 않았으며 초벌구이를 하였고 무문의 대접·접시가 생산품의 대종을 이룬다. 문양으로는 음각 연판문과 압출양각 화문 등이 사용되었다. 전형적인 고려중기 요지로 강진·부안 이외 대전 구완동이나 음성 생리·공주 신영리 등지와 같은 성격의 가마로 추정된다.

## 11. 안양시 석수동 요지<sup>17)</sup>

14) 김영진, 2002, 「앞책」 주12) 33-78. 한편 봉암리와 원산리의 도기가마에 대해 김영진은 같은 책에서 7세기 고구려 토기로 파악하였으나 남한지역 학자들은 대체로 초기 청자와 같은 시기에 조업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

15) 정양모·김영원·구일희, 1990, 『仁川 景西洞 綠靑磁 窯址』(國立中央博物館·仁川市立博物館)

16) 기전문화재단연구원, 2002, 12, 14, 「용인 죽전택지지구내 청자가마터 발굴조사 지도위원회자료」

17) 鄭良謨, 1992, 『韓國의 陶磁器』(文藝出版社) 293-316 ; 시흥군지 편찬위원회, 『始興郡誌』上(시흥군) 554-580.

관악산에 형성된 가마로 청자와 백자가 함께 생산된 것으로 보고 되었다. 고려중기의 청자와 고려후기의 청자·백자 등이 발견되었다. 중기에 해당하는 자기들은 거친 모래빛음 받침을 사용하였으며 비교적 기벽이 얇고 굽 주위를 제외하고 시유하였으며 포깁변조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대접, 접시 등이 기종의 주를 이루며 문양장식으로는 陰刻紋과 壓出陽刻紋, 鐵畫紋 등이 발견되어 고려중기 다른 지방에서 제작되는 것들과 같은 양식을 가진다. 한편 고려후기까지 요업이 이어진다<sup>18)</sup>.

## 12. 안양시 무내리 요지<sup>19)</sup>

관악산에 형성된 가마로 대접·접시류가 주종을 이룬다. 대개가 포개구운 조질품으로 굽과 내저의 4~5곳에 모래빛음 받침을 사용하였다. 내면에 원각이 있는 대접류나 내면이 평평하고 축선이 꺾이듯 올라서서 외반되는 접시류 등에서 전형적인 고려중기 청자의 동반관계를 보여 주고 있다.

이밖에도 경기도 일원에서 발굴조사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으나 지표조사 등을 통해 생산품의 성격과 운영시기 등을 추정할 수 있는 고려시기 요지들은 현장조사 성과가 축적되면서 그 양이 늘어나고 있다. 예를 들어 용인시 경우도 발굴지역 외에도 서리 하반·서리 세장터골·묵리 등이 더 있으며, 여주 지역도 발굴된 중암리 1기를 포함하여 20여기의 고려시대 청자·백자 요지가 추가로 확인되었다<sup>20)</sup>. 또 행정상 경기 황해도지역은 아니지만 이들 지역과 인접한 지역으로서 평안남도 남포시 천리마 구역에서는 원산리 요지와 유사한 성격의 태성1호 요지가 발굴조사 되어 알려져 있다<sup>21)</sup>.

현재 알려진 경기도 및 황해도지역 고려요지는 <표 1>과 같다.

- 
- 18) 고려말에 청자와 비슷한 기형을 유지하면서도 백자로 제작된 예는 강원도 楊口郡 方山面 일대에서도 여러기가 확인되었다. 특히 양구는 홍무24년(1391)명 백자의 생산지로 거의 확실시 되는데, 석수동 백자와 비교할 때 태토 및 유약사용에 있어 공통점을 보여준다.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 2001. 『楊口 方山の 陶窯址』
- 19) 지표조사시 수습된 해무리굽 저부편으로 鄭良謨는 무내리 가마의 전체 편년을 올려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앞서 중암리나 용인서리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이미 강진에서 대규모 요업이 활성화된 이후 시기 기존의 초기청자를 제작하던窯場에서도 새로운 생산품의 양식이 반영되는 것을 감지할 수는 있으나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해무리굽 완과 같은 전통적인 기형이 강진지역보다 오래도록 새로운 양식의 청자들과 함께 일부에서 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어서 초기청자 전통이 강하게 남아있던 지방에서는 해무리굽 청자완의 제작하한이 의외로 늦어질 수 있다고 본다. 鄭良謨, 1992. 『韓國의 陶磁器』(文藝出版社) 320-323 ; 시흥군지 편찬위원회, 『始興郡誌』(시흥군) 554-580.
- 20) 백종오·조주연, 2002. 「驪州地域 陶磁遺蹟의 現況과 性格」 『畿甸考古』 제2호(畿甸文化財研究院) 221-254.
- 21) 김영진, 2002. 『도자기가마터발굴보고』(사회과학출판사). (『알책』주12) 4-32.



&lt;표 1&gt; 경기도 및 황해도지역 고려시기 가마터

지역명	생산물	운영시기 (필자)	조사자 및 년도	조사성격	보고서 및 출처
경기도 인천광역시 경서동	조질청자 (녹청자)	11-12세기	국립중앙박물관 인천사립박물관 1965-1966	발굴완료	1990. 『仁川 景西洞 綠靑磁 窯址』
경기도 용인시 서리 충덕	청자, 백자	10-12세기	호암미술관 1984-1988	발굴완료	1987. 『龍仁西里高麗白磁窯』 2003. 『龍仁西里高麗白磁窯Ⅱ』
경기도 용인시 서리 상반	백자	11-12세기	기전문화재연구원 2001, 2002, 2003	발굴중	「용인 이동 서리상반 고려백자 요지 발굴조사 지도위원회자료」 1,2,3차
경기도 용인시 서리 하반	백자	고려-조선	용인시, 용인문화원 2002	지표조사	2002. 『처인성 주변지역 지표조사』
경기도 용인시 서리 세장터골	백자	11-12세기			
경기도 용인시 보정리	청자	12-13세기	기전문화재연구원 2002, 2003	발굴완료	「용인 죽전택지지구내 청자 가 마터 발굴조사 지도위원회자료」 1, 2차.
경기도 용인시 북리	흑유자	고려-조선	용인시, 용인문화원 2002	지표조사	2002. 『처인성 주변지역 지표조사』
경기도 용인시 호동 1호	도기	고려초	용인시, 용인문화원 1999	지표조사	1999. 『용인의 도요지』
경기도 용인시 수지읍 죽전	도기	고려초	용인시, 용인문화원 1999	지표조사	1999. 『용인의 도요지』
경기도 시흥시 방산동	청자, 백자	10-11세기	해강도자미술관 1997-1998	발굴완료	2001. 『芳山大窯』
경기도 시흥시 방산동	도기	10세기	해강도자미술관 2002	발굴완료	2002. 「시흥시 방산동 토기요지 발굴조사 현장설명회자료」
경기도 시흥시 방산동	청자	10-11세기	기전문화재연구원 시흥시	지표조사	2000. 『시흥시의 역사와 문화』 지표조사보고서
경기도 여주군 중암리(1개소)	청자, 백자	10-11세기	경기도 박물관 2001, 2003	발굴완료	2001.10.17. 「여주 중암리 고려 백자요지 발굴조사 현장설명회 자료」 2003.2. 「여주 중암리 고려백자 요지 2차발굴조사 약보고서」
경기도 여주군 중암리(8개소)	청자, 백자	고려	경기도 박물관 2002	지표조사	백종요·조주연, 2002. 「驪州地域 陶磁遺蹟의 現況과 性格」『畿甸考古』제2호 (畿甸文化財研究院) 221-254.
경기도 여주군 도전리(2개소)	백자, 청자	고려	경기도 박물관 2002	지표조사	

지역명	생산품	운영시기 (필자)	조사자 및 년도	조사성격	보고서 및 출처
경기도 여주군 부평리(4개소)	백자,청자	고려	경기도 박물관 2002	지표조사	백종오·조주연, 2002. 『驪州地域 陶磁遺蹟의 現況과 性格』『畿甸考古』제2호 (畿甸文化財研究院) 221-254.
경기도 운춘리 (1개소)	청자	고려	경기도 박물관 2002	지표조사	
경기도 장암리 (3개소)	청자	고려	경기도 박물관 2002	지표조사	
경기도 상교리 (1개소)	청자	고려	경기도 박물관 2002	지표조사	
경기도 안양시 석수동	백자	12-13세기	시흥군	지표조사	『始興郡誌』上
경기도 안양시 무내리	백자	12-13세기	시흥군	지표조사	『始興郡誌』上
경기도 고양시 원흥리	청자	10-11세기	국립중앙박물관	지표조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2. 『한국의 청자도요지』
경기도 양주군 부곡리	청자	10-11세기	국립중앙박물관	지표조사	
경기도 연천군 도신리	도기	12-13세기	경기도 박물관 2000	지표조사	2001. 『경기도3대하천유역 종합 학술조사Ⅰ. 임진강』Vol.3.
강원도 원주시 부른면 단강리	청자	11세기 (野守健)	野守健	지표조사	野守健, 1944 『高麗陶磁の研究』, 清閑舍
강원도 원주시 부른면 손곡리	청자	11세기 (野守健)	野守健	지표조사	野守健, 1944 『高麗陶磁の研究』, 清閑舍
황해북도 송화군 주촌리(8개소)	청자	10-11세기 (野守健)	野守健	지표조사	野守健, 1944 『高麗陶磁の研究』, 清閑舍
황해남도 평산군 제궁리	청자	10-11세기 (野守健)	野守健	지표조사	野守健, 1944 『高麗陶磁の研究』, 清閑舍
황해남도 배천군 원신리	도기,청자	10-11세기	사회과학원 1989-1990	발굴완료	김영진, 2002. 『도자가가마터 발굴보고』(사회과학출판사)
황해남도 봉천군 봉암리	도기,청자	10-11세기	사회과학원 1963, 1991	발굴완료	
개성 월개요	-	고려	-	문헌	『高麗史』睿宗 9년(1114)
개성 판적요	-	고려	-	문헌	『高麗史』毅宗 2년(1167)
개성 남산요	청자	고려	-	문헌	李奎報(1168~1241) 詩

### Ⅲ. 記錄을 통해 본 개경부근의 가마터

현전하는 기록이 많지는 않으나 개경부근에도 가마터가 있었을 것임을 암시하는 기록이 몇 가지 있다.

#### 1. 月蓋窯

睿宗 9년(1114) 『고려사』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보인다<sup>22)</sup>.

(A) “(前略) 9년 4월 을축일에 큰 우박이 내리고 文德殿 동쪽 행랑 기둥과 남산, 溟江月蓋窯의 나무에 벼락이쳤다”

현재 위치는 확인할 수는 없으나 文德殿은 본래 학자들이 왕에게 강의하던 곳으로서 고려 초부터 설치하여 인종 14(1136)년에 修文殿으로 개칭하였으므로 12세기 전반에 존재하였던 건물임이 확실하다. ‘南山溟江月蓋窯’라고 할 때 ‘남산의 폐강 근처 월개요’라는 뜻인지 ‘남산 및 폐강의 월개요’라는 뜻인지 또는 ‘남산’, ‘폐강’, ‘월개요’를 각각 지칭하는 것인지 언뜻 보아서는 분명치 않다. 그런데 기록의 명칭과 실제 지리를 비교하면 어느 정도 해명이 된다. 여기서 말하는 남산은 개경의 남산이었던 진봉산으로 추정되며 溟江은 예성강으로 볼 수 있다. 월개요는 단순지명은 아니라고 보아 1114년 당시 가마가 존재하고 있었거나 또는 예전에 가마가 있던 지역으로서 옛 지명이 남아 있거나 할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예성강은 개경을 중심으로 볼 때 서쪽에 위치하므로 ‘남산’과 ‘폐강’은 서로 방향이 90도 다르다. 따라서 월개요는 남산과는 관련이 없는 ‘폐강(예성강)’ 인근의 요지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 예성강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청자가마터는 봉천 봉암리와 배천 원산리이다. 이 두지역은 근래까지도 봉천군 소속이었으나 최근 북한에서 행정구역을 조정하면서 원산리는 배천[白川]에 봉암리는 봉천에 소속되었다. 실제로 이들 두 요지 발굴결과 도기요지와 청자요지가 함께 발견되는 점이나 제작품의 성격이 유사하여 거시적으로 보아 같은 生産集落으로 보아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이다. 그런데 아직까지 예성강 인근에 12세기 또는 그 이전에 요장이 운영되었을 것으로 생각되는 요장은 이들외에는 알려진 바가 없다. 따라서 (A)의 사건이 1114년의 일이라면 월개요는 어쩌면 이미 폐요가 되고 그 이름이 지명으로 남게 되었거나 혹은 그 지역에 아직 우리가 모르는 12세기 요지가 있을 가능성이 모두 있다고 본다.

22) 『高麗史』卷53. 志7. 五行1. 水. “...九年四月乙丑. 大雨雹. 震文德殿東廊柱. 及南山溟江月蓋窯等處樹木...”; 秦弘燮, 1987. 『韓國美術史資料集成(1)』(一志社)622.

## 2. 板積窯

개경 인근에 가마가 있었음을 증명 해주는 또 다른 내용은 1167년 毅宗 2년 기록에 나타난다. 의종대에 세워진 別宮 晩春亭과 관련된 기사에 보이는 “板積窯”가 그것이다.

(B) “무인일에 왕이 河清節과 관련하여 萬春亭에 갔다. 이날 幸樞 시신들을 위하여 延興殿에서 연회를 배설하는데 大樂署와 管絃坊에서 제각기 綵棚, 蓮花, 獻仙桃, 拋毬樂 등 가무놀이를 갖추었다. 또 만춘정 남녘 浦口에 배를 띄우고 물을 따라 오르내리면서 서로 시를 화답하다가 밤이 되어서야 파하였다. 이 만춘정은 板積窯에 있었다. 처음에 판적요에 정자를 지었는데 그 안에 延興殿이 있고 남쪽에는 시냇물이 둘러 있으며 좌우에는 松竹과 화초를 심었다. 그리고 일곱 채의 茅亭, 草樓가 있었는데 그 중 현관을 붙인 것이 네 채로서 靈德亭, 壽御堂, 鮮碧齋, 玉竿亭 등등이요, 그 외에 錦花橋와 水德門이 있으며…(後略)<sup>23)</sup>.”

晩春亭의 위치는 개성 동쪽 大德山의 맞은편으로 板積川의 상류에 있다. 따라서 “판적요”라고 할 때 “판적”은 지명임을 알 수 있고 판적천 상류에 있었던 가마임으로 판적요라 이름이 붙은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판적요 인근에 여러개의 정자와 門, 다리 등을 갖춘 별궁이 지어졌다고 하는 것을 보면 별궁의 위치가 가마와 가까운 곳임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상식적으로 궁궐과 정원을 조성할 정도이면 이미 가마는 폐요가 되고 과거의 활발했던 명성이 지명으로 남아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따라서 (B)의 판적요 역시 (A)의 월개요와 마찬가지로 1167년 당시 이미 생산을 멈추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 3. 南山의 가마

한편 개경부내 남산 근처에도 가마가 있었음이 확인된다. 李奎報(1168~1241)의 「金君乞賦所 飲綠瓷盃用白公詩韻同賦」詩를 보자.

(C) “남산의 나무 베어 불을 때는 연기 해를 가리네. 푸른 자기 술잔을 구워내어 열 가운데 하나를 고르니, 빛나도다 푸른 옥의 광채여. 몇 번이나 푸른 연기에 파묻혔던고…… 이제야 알겠네 술잔 만든 솜씨, 하늘의 조화 빌어온 것을. 작은 점 꽃무늬 오묘하기가 그림 그린 듯하네…<sup>24)</sup>.”

라고 하였다. ‘남산’은 (A)의 그 남산, 즉 진봉산일 것이고 나무를 베어 요장의 땀감으로 사용

23) 『高麗史』卷18, 世家18, 毅宗2, 乙酉 21년(1167)

24) 李奎報『東國李相國集』卷8, “落木童南山 放火烟蔽日 陶出綠瓷盃 揀選十取一 瑩然璧玉光 幾青煤沒 玲瓏肖水精 堅硬敵山骨 迺知坭埴功 似借天工術 微微點花紋 妙逼丹青筆…”

했다는 것은 보면 분명 인근에 가마가 있었다는 말이 된다. 더욱이 불을 때는 연기가 해를 가린다고 하였으니 적어도 이규보 당시 이 가마는 활발하게 작업중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 때 생산한 것은 푸른자기, 즉 청자였으며 그 가운데 술잔도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청자의 장식으로 ‘작은 점 꽃무늬’를 ‘丹青’하였다고 했다. 고려에서 ‘丹青’이 ‘그린다’는 의미로 통용되고 있으므로 ‘흰색의 작은 점 꽃무늬가 마치 물감으로 그려 넣은 것 같다’고 한 것은 결국 청자에 白土로 花文을 그린 ‘白畵[堆花]’ 기법을 설명하는 내용으로 이해된다<sup>25)</sup>.

결국 (A), (B), (C) 기록으로 보면 개경 인근에도 고려 전기부터 중기까지 가마가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 더욱이 白畵기법으로 문양을 그린 것이라면 康津이나 扶安과 유사한 조형을 가진 청자가 개경 인근에서도 만들어졌으며 왕실 외에 적어도 귀족 계층에서는 그 생산품을 사용할 수 있었음을 시사한다. 이밖에도 개경과 멀지 않은 경기도 楊州에는 王과 王妃·元子가 친히 양주에 거둥하여 都邑한 땅을 相宅하고 1068년 새로 궁궐을 지어 南京으로 하는 등<sup>26)</sup> 개경인근 지역의 도시가 확장되고 인구가 증가하면서 청자의 수요도 증가하였을 것이다. 실제로 황해도 일원과 경기도 지역에는 고려말부터 조선에 이르는 요지들이 알려지고 있어 고려시기 내내 개경을 중심으로 광범한 도자생산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 IV. 京畿地域 요업의 성격

### 1. 窯址出土 祭器를 통해 본 초기청자 요업

그렇다면 수도였던 개경과 인근 지역들에 고려 이르기부터 설립된 시흥 방산동, 용인 서리 상반마을, 용인 서리 중덕마을, 배천 원산리 등의 청자요장의 성격은 무엇이었는지 궁금해진다. 초기청자 요장의 성격을 두고 이미 고려 영역안에서 요업을 하고 있던 중부지방 요장들이 일반군현에 비해 천시되는 자기소로 편제될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私窯로 보는 견해<sup>27)</sup>와 이미 성종대이래 지방지배가 본격화되면서 중부지방 요장들이 국가수요를 위한 자기생산을 맡았을 것이므로 이 때 운영의 주체는 호족들이라기 보다는 국가였을 것이라고 보는 견해가 있다<sup>28)</sup>.

이들 가마터에서는 생산품의 50% 이상을 碗이 차지하고 있으며 그밖에 鉢, 대접, 접시, 盞과 같은 음식기들이 주종을 이룬다. 그런데 이 가운데 적은 양이지만 大形의 祭器가 포함되고 있

25) 장남원, 2003. 「앞글」, 주1) 115-116.

26) 『增補文獻備考』卷37, 楊州新宮

27) 이희관, 2002. 「앞글」, 주2)

28) 李鍾玟, 2002. 「앞글」, 주1) 39-56 ; 張南原, 2003. 「앞글」, 주1) 30-40.



〈그림 5〉 원산리요지 출토 靑瓷豆

어 주목된다.

《高麗史》禮誌에는 嘉禮의 항목 구성에서부터 五禮가 추구하는 왕실 중심의 정치사상을 구현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또 그 내용 가운데는 고려왕조가 요구하는 중앙집권화를 위해 군현 통제에 필요한 가례내용도 갖추고 있었다. 심지어 고려에서는 宋과 달리 토속적이고 불교적인 색채가 짙은 八關會나 연등회에 이르기까지 嘉禮의 범주에 넣어 雜儀로 처리하고 있다. 또한 그 내용에서도 왕실의 권위를 위한 가례의 규범과 틀을 충실히 지킨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이처럼 왕실 중심으로 嘉禮가 운영된 것은 그 자체가 王 中心의 논리였기 때문이기도 하겠으나 그만큼 유교 문화의 수용 입장이 아직은 왕실에 머물고 있었음을 반증하는 것으로 보기도 한다. 王太后 冊封, 王太子 冊封, 王太子 稱名立府 등을 위시한 왕실의 주요 의례가 이에 포함되며

이 때는 太廟, 別廟 및 景靈殿 등에 섰하게 된다<sup>29)</sup>.

바로 이와 같은 왕실의 가례를 위한 기물을 만들었던 대표적인 가마로 추정되는 곳이 황해도 배천군 원산리 요지이다. 발굴조사에서는 특히 廢窯직전의 2호가마 바닥 최상층에서 靑瓷 淳化3年(992년)銘高杯가 발견됨에 따라 제작시기와 용도 등을 알 수 있게 해 주었다. 청자의 굽바닥에는 ‘淳化三年壬辰太廟第四室享器匠王公任造’라고 음각을 하여 이 청자가 吉禮大祀 가운데 宗廟의 4室, 즉 高麗 4代 光宗의 廟堂에 배향하기 위한 獻器임을 알 수 있다. 〈그림5〉 이외에도 함께 발견된 高杯形 靑瓷片의 음각 명문들을 보면 다음과 같다.

‘淳化三年太廟○三室享器匠沈邦...’ ‘...室享器匠王公任造’, ‘.....器匠王公任造’  
 ‘.....享器匠王公.....’, ‘.....王公任造’, ‘淳化.....崔金桓造’,  
 ‘.....匠崔金桓.....’, ‘.....器匠.....’, ‘.....三年(壬申)太廟.....’  
 ‘淳化四年(○巳).....’, ‘淳化四年.....’, ‘○化四年.....’, ‘.....享器.....’ 등이다<sup>30)</sup>.

명문은 製作年度, 사용장소, 器物의 용도, 제작자 등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명문전체가 완전하게 남은 것은 1점 밖에 없지만 나머지도 유사한 구조와 내용으로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정한다. 명문은 대개 오른쪽 위에서부터 아래쪽으로 새겼으며 ‘淳化三年壬辰太廟第四室享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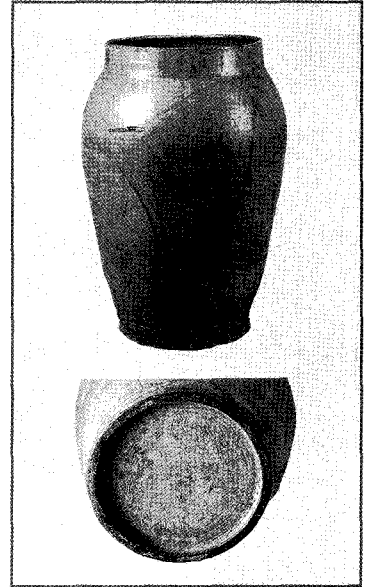
29) 李範稷, 1996. 『韓國中世禮思想研究』(一朝閣) 129-146.

30) 南秀雄, 1992-1994. 『圓山里窯蹟と開城周邊の靑磁資料』『東洋陶磁』Vol.22(日本 東洋陶磁學會) 105-120.

匠王公任造'의 경우만 왼쪽 위에서 아래로 새겼다.

그런데 위의 원산리 출토 청자들과 같은 명문 내용과 구조를 보여주는 것으로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 소장 靑瓷淳化四年銘壺(993, 보물 제237호)가 있다.〈그림6〉 구연부가 넓고 직립한 이 호는 굽 안바닥에 왼쪽 위에서 아래로 '淳化四年癸巳太廟第一室享器匠崔吉會造'라는 명문이 새겨져 있다. 이 壺가 원산리 제작품인지를 단언할 수는 없으나 원산리 요지출토 파편 가운데 '淳化四年(○巳)....'이 있고, 이들 청자의 釉色과 質이 유사하여 원산리 제작품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이견은 없다.

그런데 吉禮時 태묘의 제기진설 내용을 보면 원산리 출토 명문 청자 高杯片들과 이대박물관 소장 淳化銘 壺는 그 형태로 보아 각각 제기 가운데 豆와 壺樽에 해당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림 6〉 淳化四年(993)銘 壺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 소장)

- (D) "陳設...(중략)...祭器를 차림에 있어 각 자리 왼쪽에 籩 2개 오른쪽에 豆 2개를 놓고 쟈 하나는 神座 앞에 두며 木爵 하나를 그 다음에 두고 簠 2개는 籩과 豆의 사이에 두는데 籩는 왼쪽, 簠는 오른쪽에 놓는다. 壺樽 둘을 神座의 왼쪽에 勺, 幕과 같이 놓으며 祝站을 神座의 오른쪽에 놓는다. 또 配享功臣의 자리를 廟庭에 북쪽을 위로 하여 西向으로 마련한다. 神座는 모두 왕골로 하며 位版은 각각 座首에 둔다. 그 版文에는 각각 官爵과 姓名을 갖추어 쓴다. 祭器를 차리는 법도는 7祀에 准한다<sup>31)</sup>.

이 밖에도 제기는 獻物의 종류와 내용에 따라 공예 재료가 달랐으므로 豆와 유사한 籩이나 뚜껑처럼 덮개로 사용하는 罍은 草製로 만들어졌다. 따라서 청자로 제작되는 제기는 제기 가운데 일부 기종에 한정되어 있었을 것이다.

한편, 명문 내용 가운데 '(享器)匠'인 崔, 沈, 王씨 성을 가진 사람들은 각각 이름이 달라 총 7인 정도 되는데 이들의 소임에 대해 아직 확실히 밝혀지지지는 않았지만, '匠'이나 '匠人'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아 陶工과 같은 수공업자나<sup>32)</sup> 또는 제기도감에 소속된 관원<sup>33)</sup> 등 여러 가지 추측이 가능하다. 이들에 대해 조금 더 알기 위해 고려초 성씨 사용에 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31) 『高麗史』卷60, 誌14, 禮, 吉禮大祀, 太廟, 有司攝事儀

32) 南秀雄, 1992-1994, 「앞글」, 주 30) 115.

33) 李鍾玟, 2002, 「앞글」, 주1) 37.

같은 수공업 분야의 예를 보면, 光宗 11년(960)의 <淸州龍頭寺鐵幢記>에서는 청주의 상급 향리층이 모두 성씨를 칭하고 있음이 확인되나 顯宗 22년(1031)에 작성된 <淨兜寺五層石塔造成形址記>를 보면 지방사회에서는 상층에 속하는 인물들에서조차도 성씨를 칭하지 않고 있음이 확인된다. 그 밖의 고려초 금석문 자료들로 볼 때, 지방사회의 경우 성씨 사용이 중앙에 비해 지체되었음이 확인된다. 上層 관인의 경우 光宗代(949-975)에 이르러 성씨 사용이 일반화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지만 현전하는 墓誌銘을 통해 보면 성씨 관념은 文宗代(1046-1083)에 이르러서야 일반화되는 것으로 파악된다<sup>34)</sup>.

그렇다면 顯宗 22년(1031)에 작성된 <淨兜寺五層石塔造成形址記>에 등장하는 漆匠 會文과 鑰匠 居等達 같은 匠人의 이름과 비교할 때 992~993년의 제기들에 나타나는 성씨는 고려 당시로서는 비교적 앞선 예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이들 장인이 고려인이 아닌 외래인일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하였다<sup>35)</sup>. 사실 원산리 가마의 기술적인 원류가 중국에 있다고 볼 때 그 같은 의견은 설득력이 있다. 그러나 원산리요의 기술적 주체와 沈, 李, 王씨성을 가진 享器匠이 동일한 사람들이라고 보기에는 아직 미흡한 부분이 있으며, 10세기 말이면 이들 요장이 개시한 지 수 십년이 지난 시점으로 이미 장인의 주체가 고려인으로 바뀌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차후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더욱이 이미 신라 이래 6두품 출신 문인들이 唐의 大姓을 취해 왔고 고려에서도 官人層이 성씨를 단순히 제도적인 차원에서가 아니라 문화적 차원에서 사용하게 되면서 특히 신라의 土姓과 구분되는 중국의 大姓을 사용함으로써 이를 통해 우월성과 정체성을 드러내려 했던 것을 감안하면 匠人의 이름에 중국의 大姓인 崔, 王, 沈 등의 성씨를 사용하는 것은 오히려 국내인으로서 우월함을 나타내기 위함이 아니었을까 생각된다. 특히 그들의 임무가 고려의 종묘와 사직이 완성되고 태묘에 지내는 첫 의례를 위한 獻器의 제작임을 고려한다면 정책적으로 姓을 칭하도록 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실제로 제기들이 구체적으로 성종대에 종묘와 사직이 완성되면서 사용을 위해 제작된 것임은 다음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 (E) "...생각하옵건대 王氏가 처음 泰封에서 일어나 신라에게 항복을 받고 후백제를 멸하여 三韓을 합쳐 一家를 이룬 것이니 遼를 버리고 唐을 섬기며 중국을 높여서 국토를 보전하였나이다. 이에 번거롭고 가혹한 정치를 혁신하여 크고 넓은 規模로 넓히셨으며[恢弘], 光宗은 平臺에 임하여 선비를 시침쳐 뽑으니 儒風이 점차로 일어났고, 成宗은 종묘와 사직을 세우니 정치기구[治具]가 다 갖추어졌나이다<sup>36)</sup>.

34) 李鍾書, 1996, 「羅末麗初 姓氏使用의 擴大와 그 背景」(서울대학교대학원 석사논문)

35) 李喜寬, 2002, 「始興芳山大窯의 生産集團과 開始時期 問題」 『신라문화재학술연구논문집』 233-277.

36) 『高麗史』 「進高麗史箋」 "惟王氏之肇興, 自泰封以崛起, 降羅滅濟, 合三韓而爲一家, 舍遼事唐, 尊中國而保東



(F) “12월 태묘가 완공되었다. …丙寅에 敎하기를, “왕이 천하를 교화함에는 學校를 먼저 세워야 하고 堯·舜의 風敎를 祖述함에는 오직 周·孔, 周公과 孔子의 道를 닦아야 한다…” ”고 하였다. 이 달에 친히 大廟에 제사를 올렸다<sup>37)</sup>.

그런데 이 때 사용되는 제기는 아래와 같이 이미 성종 2년(983) 국내에 반입된 宋祭器圖가 모델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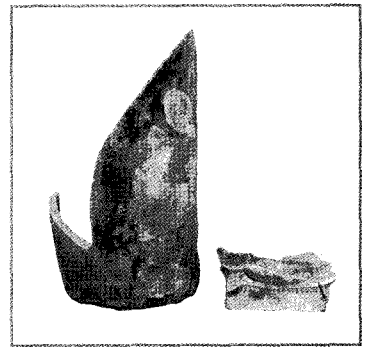
(G) “甲子에 博士 任老成이 宋으로부터 와 大廟堂圖 한 폭 및 大廟堂記 한 권과 社稷堂圖 한 폭 및 社稷堂記 한 권과 文宣王廟圖 한 폭 및 祭器圖 한 권과 七十二賢贊記 한 권을 받쳤다. 이 달에 崔行言 등에게 及第를 내려주었다. 처음으로 三省·六曹·七寺를 두었다<sup>38)</sup>.”

12세기 전반 고려의 일면을 보여주는 『高麗圖經』 器皿編에서는

(H) “전대의 역사에 이르기를 東夷는 그릇에 붉은 칠을 한 받침을 쓴다고 하였는데 지금 보니 고려의 토속이 그러하다. 만듭새를 보면 옛스럽고 소박함이 자못 사랑스럽고 다른 음식기들 중에는 때로 尊彝나 簠簋의 형태를 지닌 것이 있다…”<sup>39)</sup>

하여 12세기 당시에 陳設에 尊彝나 簠簋 등이 사용되고 있었으며 그 형태도 전통에 충실한 것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런데 초기청자요지에서 보이는 제기들은 원산리 가마외에 시흥 방산동 요지에서도 발견된다<sup>40)</sup>. 이들 제기류는 전체출토량 중에 II기층에서 50%이상의 비율로 나타나며 簠簋로 추정되는 대형기 底部片 외에 豆形器 底部(추정)가 있고 이밖에도 확실한 용도는 알 수 없으나 대형의 鉢이나 大盤, 대형 瓜形器片 등 제기였을 가능성이 높은 기물들이 제작되었다.<그림7>



<그림 7> 방산동가마 출토 제기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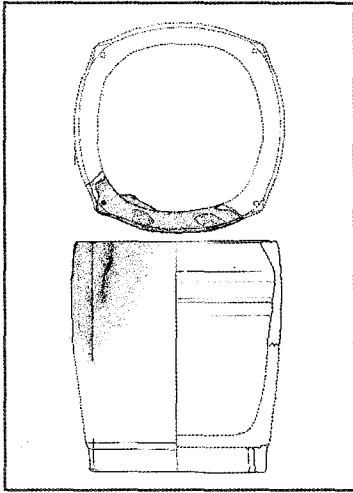
土, 爰革煩苛之政, 式恢宏遠之規, 光廟臨軒策士, 而儒風稍興, 成宗建祧立社, 而治具悉備…”

37) 『高麗史』 卷3, 世家3, 成宗11(992), 12十二月, “大廟成. ……丙寅, 敎曰, 王者化成天下, 學校爲先, 祖述堯舜之風, 聿修周孔之道, 設邦國憲章之制. ……是月, 親祀于大廟”

38) 『高麗史』 卷3, 世家3, 成宗2(983), “夏五月. ……甲子, 博士任老成, 至自宋, 獻大廟堂圖一鋪. 并記一卷. 社稷堂圖一鋪. 并記一卷. 文宣王廟圖一鋪. 祭器圖一卷. 七十二賢贊記一卷. 是月, 賜崔行言等及第, 始定三省六曹七寺”.

39) 『高麗圖經』 卷30, 器皿1, “臣聞前史, 稱東夷器用俎, 今高麗土俗猶然, 觀其制作, 古朴頗可愛尙, 至於他飲食器, 亦往往有尊彝簠簋之狀…”

40) 海剛陶磁美術館·始興市, 2001, 『芳山大窯』119-1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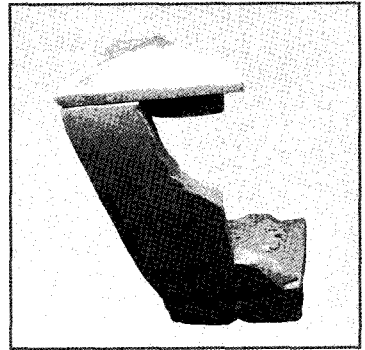
〈그림8〉 서리(중덕)요지 출토 제기

방산동과 유사한 제기들은 용인 서리에서도 적지 않게 출토된다. 용인 서리 중덕요지에서는 Ⅲ기층 이후 층위에서 外方內圓形의 簋와 內方外圓形의 簋가 거북장식이 부착된 뚜껑을 갖춘 모습으로 여러 점 발견되며 그밖에도 대형의 壺와 豆의 저부로 추정되는 파편들과 大形鉢, 瓜形 동체편 이 출토되었다.〈그림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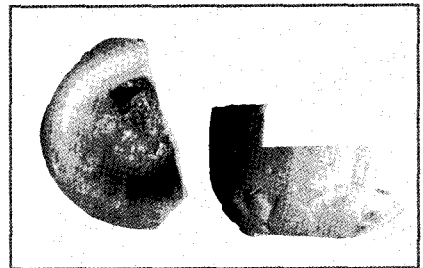
용인 서리 상반요지에서도 한국식 해무리굽이 제작되는 층위에서 簋簋형 제기가 뚜껑과 함께 여러 점 출토된다.〈그림9〉 한편, 여주 중암리 요지에서도 豆形기물의 저부로 추정되는 파편 등이 동반 출토되고 있어 博築窯의 전통을 가진 요장들에서 대형의 제기들이 함께 제작되고 있는 양상을 보여준다.〈그림10〉

그런데 원산리와 방산동의 경우 전축요 단계에서 제기가 생산된 것이고 나머지 가마들은 대개 처음에 전축요였다가 토축요식 요업으로 전환한 이후 층위에서 나타난다. 이와 같은 현상은 거란침입으로 인한 太廟의 소실과 재수축, 그리고 再修築에 따른 새로운 기물의 수요증가 등 일련의 과정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거란의 침입은 교통로에 위치하였던 기존 방산동이나 원산리 요업의 재개를 어렵게 했을 것이며, 전축요에서 토축요로 전환된 요장에서 제기가 생산되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실제로 시흥 방산동에서는 Ⅱ기층에서 주로 생산되던 제기가 용인 서리요지에서는 Ⅲ기층 이후에 나타나고 있어 제기 생산의 중심이 방산동 지역에서 서리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중부지방에서 전축요들이 거의 사라지고 요업의 중심이 남부지역으로 옮겨지는 시기 남부지방 요장들에서는 개경 인근 전축요계 요지에서 생산하던 것과 유사한 제기를 생산하는 것으로 파악되지 않는다. 따라서 남부지방이 고려 요업의 중심이 되어 고급의 한국식 해무리굽 완을 생산하는 시기에 과거 방산동이나 원산리에서 제작되었던 국가용 대형 제기는 11세기 들어 그들 전축요가 몰락하면서 용인 지역이나 여주지역 등 개경에서 멀지 않은 인근의 전통요장으로 생산이 이관되어 일정기간 제작을 영위해 나갔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림9〉 서리(상반)요지 출토 제기



〈그림10〉 중암리요지 출토 제기(추정)

## 2. 制度로 본 요업성격

### (1) 諸窯直·六窯直

『고려사』에는 요업과 관련된 직함으로 ‘諸窯直’, ‘六窯直’이 나타난다. 諸窯直은 丙科의 權務<sup>41)</sup>로 여기서 권무관 일종의 임시직의 성격을 띠고 있었다. 權務官의 祿은 8石 10斗로 諸宮錄事·東西大悲院錄事·濟危寶錄事……諸神廟直·神堂·栗浦直·九曜堂直등과 같은 등급의 하위직이었다<sup>42)</sup>.

諸窯直은 인종대에 이르러 六窯直으로 명칭이 바뀐 듯한데, 仁宗代 權務官의 祿에 대한 기록을 보면 “仁宗朝에 다시 정하였는데 …8石 10斗, 秘書校勘·太常府錄事·同文院錄事·書籍店錄事·祭器都監錄事·東西材場判官·六窯直…”이라 하여<sup>43)</sup>, 祿은 그대로이나 諸窯直이라는 직위의 명칭은 보이지 않고 六窯直이 대신하고 있다.

제요직과 육요직에서의 ‘直’은 ‘지키’를 뜻하는 것으로 ‘지킨다’의 의미이며 ‘諸窯’나 ‘六窯’를 지키는 지킴이를 의미한다. 그들이 했던 상세한 업무 내용을 알 수는 없지만 가마를 지키는 일종의 경비 업무를 보던 임시직원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적어도 인종대까지는 權務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무엇보다 ‘窯直’의 앞에 붙은 ‘諸’와 ‘六’이 주목된다. 구체적인 수량을 직위명에 넣은 것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기가 어렵다. ‘여섯 곳의 가마’인지 혹은 ‘지킴이 6명’인지, ‘여러가마’라는 말인지 ‘여러명의 가마지킴이’라는 말인지 분명치 않다. 그런데 같은 기사에 나타나는 ‘諸神廟直’, ‘諸牧監直’, ‘諸殿守護員’, ‘諸宮錄事’, ‘諸陵直’ 등을 보면 묘당이나 전각 등 장소 앞에 ‘諸’를 붙이고 있어 ‘여럿’이라는 의미로 보는 것이 좋을 듯하다. 즉 ‘제요직’은 여러가마를 지키는 지킴이로, ‘육요직’은 여섯 군데 가마를 지키는 지킴이로 해석하는 것이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요직’을 맡은 사람의 숫자는 한사람 일수도 있고 열 사람 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 기록만으로는 이들 가마의 위치가 어디였을지 알 수는 없으며, 다만 고려초기부터 요업과 관련된 직제가 있었고 적어도 인종대까지는 존속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41) 『高麗史』卷77, 誌31, 百官, 諸司都監各色

42) 『高麗史』卷80, 志34, 食貨, 祿俸, 權務官祿 八石十斗, 【延德·興慶等諸宮·東西大悲院·濟危寶·太常府·同文院·書籍店·都鹽院·給田都監錄事, 祭器·鹵簿都監·東西材場判官, 諸神廟直, 神堂·栗浦直, 諸窯直, 九曜堂直, 諸牧監直, 延祐·安昌宅·福昌·景昌院典, 諸殿守護員】

43) 『高麗史』卷80, 志34, 食貨, 祿俸, 權務官祿, “仁宗朝, 更定, …八石十斗, 秘書校勘·太常府·同文院·書籍店·祭器·鹵簿·給田都監·東西大悲院·濟危寶錄事, 昌樂·承慶等 諸宮錄事, 東西材場判官, 六窯直, 諸牧監直, 都鹽院·延祐宅·衙典·安昌宅·景昌·福昌院·萬齡殿典, 諸陵直…”

## (2) 특수 촌락의 자기 생산

고려에서는 일부 수공업 제품과 농산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특수 행정구역인 所를 설치하고 공납을 받았으며 전국적으로 275개가 알려져 있다. 그러나 조선초의 기록을 통해 그 지명 등이 알려져 있는 바 고려시대의 그것과 성격이 다를 수 있으므로 유의할 필요는 있다. 도자소는 기존에 밝혀진 강진군의 大口所와 七良所 등 두 곳 외에 高敞郡 雅山面 龍溪里와 盤岩里의 청자요지가 있다.

공물생산에 종사하는 소의 주민들은 평상시에는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들로서 당연히 농업생산에 대한 田租를 부담하면서 지방 차원의 각종 徭役 징발에 동원되는 한편<sup>44)</sup>, 자신들에게 부과된 身役으로서 공물생산 노동에도 종사해야 했으므로 일반 주민 뿐만아니라 전문 공장들도 생계를 수공업에만 의지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일정 부분은 농업을 겸영하였다고 보기도 한다. 즉, 소의 주민은 일반 주민이나 공장을 막론하고 생업 외에 별도로 貢役에 나아가야 한다. 소는 특히 전문적으로 특정 공물을 생산하도록 설정된 곳이었던 만큼 그 공물의 액수 자체가 과다하기 쉬웠을 것이다. 또 공역 자체가 身役으로 주어진 것인 만큼, 빈번하게 부과되는 別貢을 위해서도 매년 지속적으로 동원되어야 했다. 이에 따라 소민들은 농민이기 보다 마치 모두가 장인이었던 것처럼 인식될 정도였다<sup>45)</sup>.

고려는 10세기를 전후하여 수공업제도의 정비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면서 요업에 있어서도 일정한 체계를 갖추기 시작한다. 태조이래 光宗(949~975), 成宗(981~997)대를 거치면서 지속적으로 호구와 토지에 대한 파악과 각 지역에 대한 籍의 작성이 이루어지며 工匠案의 작성을 통해 수공업자들에 대한 신분적·기술적 수취를 강화하였을 것으로 본다. 이런 상황은 공장의 제도화와 관영수공업의 성립의 기초를 이루었을 것이다.

이같은 배경 아래 황해남도 배천군 원산리 요지에서 淳化3年(992)銘 청자가 출토되면서 명문의 “淳化三年壬辰太廟第四室享器匠王公托造”을 통해 ‘享器匠’의 존재가 드러났고, 所는 아니었으나 해무리굽 청자를 제작했던 全南 高興郡 豆原面 雲垈里(高伊部曲)<sup>46)</sup>나, 西山郡 聖淵面 梧沙里(聖淵部曲으로 추정)<sup>47)</sup>, 京畿道 龍仁郡 二東面 西里(處仁部曲)등지에서도 국가수요의 도자기 생산을 감당하였을 것이다.

따라서 고려초부터 도자의 생산이 커다란 국가 질서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점은 결국 중앙집권화가 강화되고, 도자수요가 증가하면서 所나 部曲같은 특수 촌락을 통한 ‘貢納窯’<sup>48)</sup>

44) 李貞熙, 1994, 「고려시대 요역제도 연구」(동아대학교 박사학위논문)

45) 서성호, 1997, 「고려전기 수공업 연구」(서울대학교국사학과 대학원 박사학위논문)3장 2절.

46) 국립광주박물관, 1991, 『고흥운대리-국립광주박물관 전남지방도요지 조사보고(Ⅲ)』75-77.

47) 서산문화원·충북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 『서산·태안 문화유적(상)』278.

48) ‘貢納窯’의 의미에 대해서는 張南原, 2003, 「앞글」IV장 2절

성격의 요업 운영이 이루어졌음을 의미한다.

자기 발생 초기에 중국식 청자와 백자가 국내에서 제작되는 것은 중국의 수입 자기만으로는 국내 수요를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우수한 제품에 대한 고려 지배층의 수요가 있었기 때문으로 보이며, 그 결과 중국의 기술이전에 의해 발달했을 가능성이 높다<sup>49)</sup>. 실제로 중국과는 달리 우리나라 경우 같은 요장내에서 청자와 백자를 함께 제작했던 것도 국내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고려식의 수요충당 방법이었을 것이다.

이미 발굴이 이루어진 시흥의 방산동 요지에서는 청자를 생산하기 이전에는 도기를 제작했으며 같은 지역내 도기 퇴적의 상층부에서 조형적인 연결관계 없이 청자요업이 시작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는 모종의 필요에 의한 대규모 생산단지의 인위적인 조성이 이루어진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sup>50)</sup>.

이와 관련하여 경기도 고양시 원당읍 元興洞 청자요지가 所였을 가능성이 제시되고 있어 주목된다. 『新增東國輿地勝覽』의 高陽郡 古蹟條에 나타난 '巾子山所'가 그것이다. 건자산 소의 지점으로 추정되는 원당읍 원흥 2동 인근에는 청자요지 외에 所로 추정할 만한 다른 요소는 없다는 이유 때문이다<sup>51)</sup>. 그렇다면 초기청자 제작시기 중부지방의 다른 요장들 역시 所나 부곡등 어떤 형태로든 국가의 직접지배 체제하에서 생산이 주도되었을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sup>52)</sup>.

결국 개경을 중심으로 일제히 나타나는 초기청자 가마들의 기술적, 조형적 공통점은 동일한 집단의 개입이 없이는 불가능하며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는 대규모 요업은 豪族과 같은 私的인 세력보다는 기술의 도입과 요장의 운영 및 생산·공급을 조절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불가능했을 것으로 본다.

### (3) 康津窯業의 발달과 경기지역 요업의 변화

한편, 차츰 강진 지역에 청자 생산이 집중되면서 경기 지역의 요장에는 변화가 생기는 것이

49) 尹龍二, 1993, 『韓國陶器史研究』(文藝出版社) 14-15.

50) 해강도자미술관, 2002, 11, 「시흥방산동 토기요지발굴조사 현장설명회 자료집」; 張南原, 2000, 「앞글」 179.

51) 朴宗基, 2001, 「京畿 北部地域 中世 郡縣 治所와 特殊村落 變化研究」 『北岳史學』第8集(北岳史學會)144-149. 경기도 高陽지역에는 특수촌락으로 鄉은 荒調鄉·長史鄉, 部曲은 栗岳部曲 所는 巴乙串所와 巾子山 所가 있었다. 이들 부곡이나 향은 주로 저습지나 비옥한 농경지를 마주한 구릉에 위치하여 屯田이나 學田등 국가 직속지를 경작하는 役을 부담했다. 한편, 건자산소는 그 위치가 건자산 아래 있다고 알려져 있다. 건자산은 乾之山으로 불리기도 하는데 원당읍 원흥 2리에 위치한다. 따라서 건자산소는 현재의 원흥동 삼거리에서 1 km가량 떨어진 원흥동 산88번지 木稀里(나무드머리)로 추정하고 있다. 현재 이 지역에서 건자산 所의 역할과 관련된 자료는 靑瓷이므로 앞서 말한 건자산 소는 청자를 생산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52) 그러나 남서부지방의 초기청자 요장들이 940년에서 970년대 전반에 이르는 시기에 자기소로 편제됨으로써 私窯로 출발한 초기청자 생산체제는 중부지방의 私窯와 남서부지방의 瓷器所 二元體制로 확립되었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이희관, 「앞글」주1).

간취된다. 이전에 벽돌을 사용했던 가마축조는 진흙을 사용하는 쪽으로 전환되고 가마규모에 있어서도 지역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약 20m내외의 중·소형으로 축소된다. 이와 함께 요도구가 단조로와지고 갑발과 도침 등이 투박하고 거칠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생산품의 質도 전축요 초기 단계와는 달리 태토와 유약이 거칠어지며 번조받침도 정교함이 떨어진다. 특히 한국식 해무리굽 완의 생산 시기에 강진의 약 50여곳에서 일정한 質과 동반기종이 생산되던 것과 비교하면 경기 지역의 생산품들은 전반적으로 질이 쇠퇴하면서 白瓷 위주로 바뀌어가고 용인 보정리나 안양 석수동 등의 예에서 보듯 지역의 수요에 맞는 청자와 백자들을 끊임 없이 생산해 갔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앞서 제기의 생산에서도 보았듯이 경기일대 가마에서의 제기 생산은 대개 전축요 전통을 가진 토축요 轉業요장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이어서 이미 강진을 중심으로 청자요업이 활성화되기 시작한 이후에도 경기 일원의 전통가마에서는 일정기간 국가용 제기를 생산했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도자생산의 중심이 남부지역으로 이동한 이후 이전에 청자를 제작하던 경기지역 생산지들은 새로운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가마시설을 기존 벽돌가마에서 진흙가마로 재정비하고 백자를 위주로 생산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여 그나마 일정기간 명맥을 유지하였을 것이고, 이후 한동안 남부지역의 청자(흑유 포함), 중부지역의 백자제작 구도가 형성되었다.

그러나 경기지역에 있었던 봉업사지나 원향사지, 고달사지 등의 주요 사찰터·분묘 등 고려 중기 이후의 다양한 소비처에서 발견되는 청자를 보면 강진이나 부안 같은 고급청자 생산지 제품들과 함께 발견되는데 그 가운데 강진이나 부안산이 아닌 청자들이 섞여 혼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들은 결국 기록에 나타난 요지들의 실체를 반증하는 것으로 고려중기 이후 경기일원에서도 남부지방의 영향으로 새롭게 청자요업이 재개되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하지만 대개는 강진이나 부안 생산 청자의 조형과 제작방법을 비교적 충실히 재현하면서도 제작품의 질이 강진이나 부안에 못 미치고 있어 남부지방이 국가의 중심적 요업생산지로 부상하면서 개경을 둘러싼 고려 초기의 선구적 요장들은 지방수요품을 생산하는 방향으로 성격이 변화해 간 것으로 이해된다.

## V. 맺음말

지금까지 개경을 중심으로 하는 경기지역 일대의 고려시기 요업과 소비 등을 다각적으로 조망해 보았다. 이를 통해 고려시대 경기지역에서는 청자발생부터 소멸에 이르는 과정의 변화상을 볼 수 있었다. 지금까지 기록과 가마터 및 소비지 등을 통해 살펴 본 바를 종합해 보면 다

음과 같다.

경기 일대에서는 청자요업 개시시기 청자요장은 대개 토기가마와 같은 지역내에서 동시에 이루어지거나 혹은 도기요업이 이루어지고 있던 지역에 새로 이식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들 초기 요장들은 벽돌이라는 재료를 築窯材로 사용한 이른바 塼築窯을 갖추었는데 그 규모와 가마구조, 생산품의 원료 운용방법, 번조방법 등에서 중국남방의 월주요계 요업방식을 그대로 채용한 것으로 보여 기술의 직접적 이식으로 보고 있다.

경기지방 요지 출토품들을 통해서 고려초기 요업부터 말기에 이르는 변천과정을 이해할 수 있게 해 주며 특히 초기청자에서 파악되는 玉環底→玉璧底(해무리굽)→輪形底의 전이과정은 한국청자 발달과정을 이해하는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였다.

경기 일원에서는 국내에서 처음 본격적으로 청자와 백자를 생산하였으며 요장들은 대개 開京을 중심으로 그 주변에 분포하면서 서로간에 일정한 質과 조형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나 월주요계 기술을 바탕으로 두면서도 국내에서 요구하는 백자수요를 감안하여 중국과는 다른 청자와 백자의 竝産을 시도한 것으로 생각한다.

위 과정에는 개경 왕실의 주도와 운영상의 일정한 체제 구축이 불가피하였을 것이다. 따라서 초기청자 제작시기 이 지역의 요업은 국가적 시스템 운영체제 아래 이루어질 수 있었을 것이다. 이는 초기 전축요에서 국가용 제기를 만들고 있었던 점과 또 실제로 所나 部曲의 존재와 일치하는 가마터들이 존재한다는 점, 그리고 국가에 요업과 관련된 것으로 추정되는 직제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강진으로 청자 제작의 중심이 옮겨진 이후에는 강진을 중심으로 하는 청자 제작의 기본틀과 궤를 같이 하지만 기술적·조형적 변화와 차이를 보이며 국가 공납용품 보다는 지역 수요에 부응하는 생산으로 그 성격이 바뀌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경기지역의 전축요시기부터 요업을 했던 전통 요장에서는 강진이 청자생산의 중심이 된 이후에도 일정기간 국가용 제기를 만들고 있었음도 확인할 수 있었다.

개경을 중심으로 하는 경기일대의 많은 소비처들의 존재는 현재까지 알려진 것 이상의 많은 생산지가 있을 가능성을 보여주며 그 출토품의 양상은 기록에서와 마찬가지로 개경 인근에 고려중기 이후에도 운영되었던 생산지가 존재할 것임을 말해준다. 따라서 이 지역은 초기에는 국가적 목적에서 요장의 운영이 이루어지며 강진요업이 활성화되면서 지방 수요품을 생산하는 성격으로 변화해 간 것으로 볼 수 있다.

<참고문헌>

- 『高麗史』,  
『東國李相國集』,  
『增補文獻備考』  
국립광주박물관, 1991. 『고흥운대리-국립광주박물관 전남지방도요지 조사보고(Ⅲ)』.  
기전문화재연구원, 2001. 「용인 이동 서리상반고려백자요지 발굴조사 지도위원회자료」.  
\_\_\_\_\_, 2002. 12. 「용인 죽전택지지구내 청자가마터 발굴조사 지도위원회자료」.  
\_\_\_\_\_, 2003. 2. 「용인 서리상반 고려백자요지 2차발굴조사 지도위원회자료」.  
\_\_\_\_\_, 2004. 1. 「용인 서리상반 고려백자요지 3차발굴조사 지도위원회 자료」.  
京畿道博物館, 2001. 「여주 중암리 고려백자요지 발굴조사 현장설명회자료」.  
\_\_\_\_\_, 2003. 2. 「驪州 中岩里 高麗白瓷窯址 2次發掘調査 略報告書」.  
三星文化財團·湖巖美術館, 1987. 『龍仁西里高麗白磁窯-發掘調査報告書Ⅰ』.  
서산문화원충북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 『서산·태안 문화유적(상)』.  
시흥군지 편찬위원회, 『始興郡誌』上(시흥군).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 2001. 『楊口 防山の 陶窯址』.  
조선유적유물도감편찬위원회, 1992. 「봉천군 원산리 자기가마터」『조선유적유물도감』12(평양)  
韓國情神文化研究院, 1992. 『한국의 청자요지』.  
海剛陶磁美術館·京畿道 始興市, 2001. 『芳山大窯』.  
해강도자미술관, 2002. 11. 14 「시흥시 방산동 토기요지 발굴조사 현장설명회자료」.  
湖巖美術館, 2003. 『龍仁西里高麗白磁窯Ⅱ』.  
海剛陶磁美術館·始興市, 2001. 『芳山大窯』.  
해강도자미술관, 2002. 11. 「시흥방산동 토기요지발굴조사 현장설명회 자료집」.  
김영진, 2002. 『도자기가마터발굴보고』(사회과학출판사).  
김영진, 1991. 「황해남도 봉천군 원산리 청자가마터 발굴간략보고」『조선고고연구』2호  
(사회과학출판사).  
南秀雄, 1992-1994. 「圓山里窯蹟と開城周邊の青磁資料」『東洋陶磁』Vol.22(日本 東洋陶磁學會).  
朴宗基, 2001. 「京畿 北部地域 中世 郡縣 治所와 特殊村落 變化研究」『北岳史學』第8集  
(北岳史學會).  
방병선, 2001. 「開城出土 高麗靑瓷의 研究」『講座 美術史』第17號 (한국불교미술사학회).



- 백종오·조주연, 2002. 「驪州地域 陶磁遺蹟의 現況과 性格」『畿甸考古』제2호(畿甸文化財研究院).
- 서성호, 1997. 「고려전기 수공업 연구」(서울대학교국사학과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尹龍二, 1993. 『韓國陶磁史研究』(文藝出版社).
- 李範稷, 1996. 『韓國中世禮思想研究』(一朝閣).
- 李貞熙, 1994. 「고려시대요역제도 연구」(동아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李鍾玟, 2002. 『韓國의 初期靑磁 研究』(弘益大學校 大學院 博士論文).
- \_\_\_\_\_, 2001. 「始興 芳山洞 初期靑磁 窯址 出土品을 통해 본 中部地域 博築窯의 運營時期」, 『美術史學研究』 228·229 (韓國美術史學會).
- 李鍾晝, 1996. 「羅末麗初 姓氏使用의 擴大와 그 背景」(서울대학교대학원 석사논문).
- 李喜寬·崔 健, 2001. 「高麗初期 靑磁生産體制의 變動과 그 背景」『美術史學研究』232(韓國美術史學會).
- 李喜寬, 2002. 「韓國 初期靑磁生産體制의 成立과 展開」『대의 文물교류 연구』 (해상왕 장보고기념사업회).
- \_\_\_\_\_, 2002. 「始興芳山大窯의 生産集團과 開始時期 問題」『신라문화재학술연구논문집』.
- 장남원, 2000. 「고려시대의 陶器와 靑瓷」『제3의 전통, 옹기의 원류를 찾아서』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
2003. 『高麗中期 靑瓷의 研究』(梨花女大 大學院 博士論文).
2003. 5. 22. 「高麗時期 京畿地域 窯業性格에 關한 試考」(경기도박물관).
- 전승창, 2001. 「출토유물 고찰」『龍仁 西里 高麗白磁 窯址의 再照明』(龍仁文化院).
- 全榮京, 1993. 「楊州 釜谷里 靑磁碗 研究」(弘益大學校大學院 韓國美術史專攻 碩士學位請求論文).
- 정양모·김영원·구일희, 1990. 『仁川 景西洞 綠靑磁 窯址』(國立中央博物館·仁川市立博物館).
- 鄭良謨, 1992. 『韓國의 陶磁器』(文藝出版社).
- 秦弘燮, 1987. 『한국미술사자료집성(1)』(一志社).
- 韓盛旭, 2001. 『高麗 後期 靑瓷의 性格』(목포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 한혜선, 2003. 「경기지역 출토 고려시대 저장·운반용 질그릇 연구」(한국상고사학회).

## Trends of Ceramic Industry in the *Gyeonggi* Province During the Goryeo Period

Chang Nam-won(Curator, Ewha Womans University Museum)

*Gaegyeong*(開京), the capital of the Goryeo Dynasty (918-1392), acted as the hub for producing various potteries for the royal family, governmental offices, temples, and markets in the *Gyeonggi* and Hwanghae Provincences where consumptions were highly concentrated.

*Gyeonggi* Province was the very first place for the porcelain to be produced in Korea. The size and structure of factories, materials of porcelain, and firing techniques were adopted from southern China's Yue-yao(越州窯) style brick kilns, where Chinese techniques were directly transferred to Korea. However, Goryeo kilns differ from Yue-yao style kilns in a sense that they produced both celadon and white porcelain.

In the beginning when industrial units of kilns began to produce celadon, they were either built in the same regions as kilns that produced stonewares or they were newly introduced in the areas that only produced stonewares to later substitute them into producing solely celadon.

In this time of chaos, it became inevitable to build a consistent porcelain production system. Therefore, the production of celadon was strictly under the government's control for the smooth production of wares. The fact that industrial units of kilns near the *Gaegyeong* area produced consistent quality porcelain of similar shapes proves that these factories were under the direct control of the government.

It is noteworthy that these early brick kilns produced ritual vessels for the royal family, and there are kiln sites that seem to have co-existed with So and Bugok. In addition, there are evidences of organizations of governmental offices that are related to kiln productions for the government.

When the main production line of Goryeo celadon moved away to *Gangjin*(康津), kilns in the *Gyeonggi* Province began to switch their products from ritual vessels only for the royal family to more general items in order to satisfy the high demands for the public in the nearby area. However, though the kilns in *Gangjin* actively produced celadon, it appears that traditional factories in the *Gyeonggi* Province still produced ritual vessels for the royal family for a while. This fact contributed much to the understanding of the history and characteristics of the Goryeo kiln production.

In the meantime, the existence of demands for many celadon and trends of excavated porcelain in the *Gyeonggi* Province shows the infinite possibility that there must have been more kilns in the *Gaegyeong* area that operated until the mid-Goryeo period.

[Key Word] *Gyeonggi*(京畿), *Gaegyeong*(開京), Brick Kilns(磚築窯), So(所), Ritual vessels(祭器).